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에 대한 연구

김민경(남서울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레질리언스(자존감, 자기신뢰, 자기수용), 행복의 일반적 경향과 이들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행복에 미치는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다문화가족 남편 184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은 신선인(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 중 사회부적응, 불안,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레질리언스 척도는 이상준(2006)이 사용한 것을 토대로 레질리언스 측정은 자존감, 자기신뢰, 자기수용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박영신, 김의철(2009)의 ‘행복’에 대한 질문을 위한 척도와 Bradburn(1969)의 표준화된 행복척도 중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평균, 상관관계를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PASW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정신건강에서 사회부적응점수가 3.286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 우울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레질리언스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고 총행복에서 행복과 긍정적 정서는 3.365, 3.040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는 2.460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긍정적 특성을 보인 변인보다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행복에 가정월평균소득, 불안, 우울, 자존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46.8%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가정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행복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행복이 소득, 정신건강, 레질리언스 중 자존감이 행복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정서에 가정월평균소득, 사회부적응, 불안, 우울, 자기신뢰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3.9%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가정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자기신뢰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에는 자기수용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11.3%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족남편의 경제적 자원정도는 남편의 행복 뿐만아니라 부정적 정서와도 연관됨을 볼 때 이들에 대한 물질적 자원의 확보에 대한 지원과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이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행복에 자존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긍정적 정서에 자기수용이 영향을 주어 자신에 대한 관리와 감정통제 등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특성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행복과 긍정적 정서를 위한 레질리언스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